

제약社, 사외이사 역량 강화 회계·법조 전문가들 모신다

한독·광동제약 등 회계 인사 선임
삼바, 하근녕 등 법조계 인사 영입
신약개발 분야도 인사영입 잇따라

제약·바이오사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회계·법조계 전문가들로 사외이사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전문가들이 주를 이뤘던 사외이사 풀에 회계·경제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까지 새롭게 영입했다. 지난해 회계 관련 이슈와 각종 소송이 불거졌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오는 28일 정기 주총을 열고 한찬희 전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대표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한다. 그는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내고 있다.

광동제약은 오는 29일 주총을 열고 삼정KPMG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조민식씨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

낸 이상원 법률사무소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오는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한국은행 감사실 부실장, 기업금융팀장 등을 지냈던 오세만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보령제약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박윤식 맥쿼리자산운용 최고운영자(COO)와 전인구 서숙대학교 약제학 박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법조계 인력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2일 열리는 주총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허근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영입한다. 허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은 법조계 인사다. 이와 함께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현재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가량을 분식회계 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신라젠 역시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일했던 김병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는 동인에서 근무 중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10월 미국 폴티스 어드바이저로부터 286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신약개발 분야 인사 영입도 이어졌다.

종근당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흥순욱 중앙대 약학박사와 강인수 전 현대경제 연구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JW중외제약 역시 이번 주총에서 한정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지정 기초의 과학연구센터 센터장과 전비호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오롱생명과학 'KLS-2031'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美 임상 승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인 KLS-2031(이하 KLS-2031)이 미국 1상·2상 임상 진행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IND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치료제인 'KLS-2031'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후속파이프라인으로 기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방식과는 달리 유전자를 이용한 주사 요법의 치료제다. 인보사 출시 이후 유전자치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신체의 손상이 아닌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난치성이며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통증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극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감각신경계 질환이다.

'KLS-2031'은 2개의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전달체'에 3개의 치료 유전자를 탑재한 유전자치료제다. 첫 번째 전달체에는 'GAD65' 유전자를 탑재해 뇌로 가는 통증신호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두 번째 전달체에는 'GDNF'와 'IL-10' 유전자를 탑재해 각각 손상된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이를 통해 통증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술방식은 1회 국소 주사로 진통 효능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타깃으로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진행 할 이번 1상과 2a상의 계획은 미국 2개 임상 기관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2019년도 내에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험대상은 18명으로 투약 후 24개월간 관찰한다.

'KLS-2031' 연구는 유전자치료제 분야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출연해 2015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과제 지원'으로 수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성공적인 상업화 이후 후속파이프라인으로 연구개발중인 KLS-2031의 미국 FDA의 임상승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전자치료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국내의 최첨단 유전자 연구수준을 해외 바이오시장에 한층 더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시마SC, 편의성 높인 치료옵션 될 것"

셀트리온, 유럽서 임상결과 첫 발표
IV 투여군 비 체내 약물농도 안정적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램시마SC의 자동주사제(오토인젝터) 임상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8일(현지시간 기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19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ECCO)에서 크론병 환자 대상 램시마SC의 장기 임상 결과 및 프리필드 시리지(사전충전형주사제)와 오토인젝터간 약물동태학·안전성 비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를 프리필드 시리지와 오토인젝터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했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판매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 전문의 윌터 레이니쉬 박사가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19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서 램시마SC에 대한 임상결과를 구술발표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학회의 구술발표 세션에서 램시마SC의 54주간의 임상 결과 램시마SC를 투여한 군의 체내 약물 농도가 램시마IV를 투여한 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안전성 평가 결과 데이터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술발표 연자로 나선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 전문의 윌터 레이니쉬 박

사는 "이번 장기 임상 연구를 통해 램시마 SC와 IV제형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의 유사함이 입증됐다"며 "램시마SC는 램시마IV와 함께 인플릭시맙으로 치료 받는 중등도~중증 크론병 환자 및 염증성 장질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영유아 '6가 혼합백신' 개발한다

빌게이츠재단서 370억 자금 지원

LG화학이 전세계 영유아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6가 혼합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의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이하 빌게이츠재단)'으로부터 약 37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LG화학이 개발 중인 6가 혼합백신은 영유아에게서 치사율이 높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뇌수막염, 소아마비 등 6가 질병을 동시에 예방

하는 백신이다.

혼합백신은 각 백신 원액 간의 면역학적 간섭 반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요구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사전적격성평가 인증을 받은 6가 혼합백신 제품이 없어

LG화학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높은 접종편의성으로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적격성평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연구원들이 바이오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 임상시험과 백신 생산설비 확장에 이번 지원금을 사용해 2023년 이후 국제 구호 입찰 기구인 유니세프 등을 통해 전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타임세일로 '봄캉스' 실속 쟁기자!"

호텔신라, 3일간 멤버스데이 진행

설레는 봄 여행에 실속을 더해줄 타임세일 프로모션이 찾아온다.

호텔신라는 11일 오전 11시부터 13일 자정까지 단, 3일간 진행하는 신라워즈의 타임세일 '멤버스 데이'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멤버스 데이'는 서울 및 제주신라호텔, 그리고 전국 11개 지점의 신라스테이를 특가로 예약할 수 있는 봄 시즌 타임세일 상품으로, 신라호텔의 무료 통합 멤버십인 '신라워즈'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신라호텔은 '리워즈 스프링 딜라이즈' 패키지를 출시했다. 투숙기간은 3월 24일~4월 25일까지며, 100개 객실만 한정 판매되는 상품이다. 오는 3월 23일



/호텔신라

서울 내 특급호텔 중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어 따뜻한 아외온 수풀에서의 수영과 봄 꽃이 만개한 난산의 정취를 두루 즐길 수 있다. 이국적인 풍경의 제주신라호텔에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투숙 가능한 '리워즈 스프링 겟어웨이' 패키지도 있다.

/신원선 기자